

소비자 62% “생활비 쓰면 남는 돈 없어” ... 카드빚도 증가

미국 성인 10명 중 6명이 저축 없이 매달 월급을 모두 소진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신용카드 대출에 의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 미국 성인의 상당수가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지난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P2P(개인 간 금융) 대출 회사 렌딩클럽이 결제 데이터 정보서비스회사 페이먼트닷컴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6일~22일 미국 성인 소비자 3천252명을 상대로 소비와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성인 응답자의 62%가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소득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우려되는 것은 부채가 많은 가구가 소비를 위해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에 의존하면서 재정적으로 어

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올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41%에서 상승한 수치다. 특히 생활비를 지출하면 남는 소득이 없다고 말한 응답자의 65%가 올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다.

리볼빙은 일시금으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연말 명절 소비 특수 속에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게 지속되고 있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신용카드 빚에 의지해 근근이 지출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인구증가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이민 증가가 한몫”

미국의 인구 증가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서 이민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 연방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지난 19일 공개한 '2023 인구 추정 보고서' (Vintage 2023 population estimates)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지난 1년새 160만 명 이상 늘며 작년 대비 0.5% 증가한 3억3천491만4천895명으로 파악됐다.

인구조사국은 “출산율은 감소했으나 사망률이 9% 가량 줄고 이민이 2020년 이전부터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늘면서 2018년 이후 가장 큰 인구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50개 주 가운데 42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인구 증가세가 목격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부 지방의 인구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들 지역

은 지난 1년새 인구가 140만 명 이상 늘었는데 미국 전체 인구 증가분의 87%를 차지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인구는 이 기간 7만5천423명 감소하는 등 뉴욕(-10만1천984명), 일리노이(-3만2천826명), 루이지애나(-1만4천274명), 펜실베이니아(-1만408명), 오리건(-6천21명), 하와이(-4천261명), 웨스트버지니아(-3천964명)의 인구는 감소했다.

지난 1년새 인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주는 텍사스(47만3천453명)였고 플로리다(36만5천205명), 노스캐롤라이나(13만9천526명), 조지아(11만6천77명), 사우스캐롤라이나(9만600명) 등의 순이었다.

주별 인구 순위 1위는 캘리포니아(3천896만5천193명), 2위 텍사스(3천50만3천301명), 3위 플로리다(2천261만726명), 4위 뉴욕(1천957만1천216명), 5위 펜실베이니아(1천296만1천683명) 등이 5위권에 들었다.

불법이민 급증

아시아·아프리카서도 몰려들어



▲ 텍사스주 이글패스의 미국-멕시코 국경 검문소에서 이민자들이 미 당국의 처리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미국행 불법 이민자가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등지에서 몰려들면서 미국으로 이민 유입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 미 당국이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전 세계 각국에서 입국 알선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민자가 몰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훌쩍 넘어서자 당국은 최근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에서 멕시코 접경지역의 다리과 검문소들을 줄줄이 닫았다.

현재 이민자 규모는 CBP의 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치의 2배에 이른다고 CBP 관리들이 WP에 전했다. 이에 당국은 다급하게 국경 인근에 이민자를 처리할 대규모 대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이민자 억류·송환 역량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중남미 출신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CBP 관리들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족 이민자들을 구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통상 몇 달 또는 몇 년 뒤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와 함께 풀려난다. 그 결과 CBP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 단위라고 WP는 지적했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급여 관련 예산/재무 계획 각종 세금 관련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IRS, FTB, CDTFA, EDD 세무 회계 감사 해외자산 FBAR-Report	회사 설립 사업 운영 전략 재무/회계 상담 사업 가치 산정 각종 거래 관련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